

고국에서 다양한 무대 펼치는 탁영아

사 우스이스턴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탁영아가 하반기에 한국에 일시 귀국해 왕성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우선 8월 22일에 'Dureraum Summer 2012 실내악축제'의 일환으로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 연극장 부산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에서 피아노 트리오 공연을 가진 그녀는, 오는 9월 18일 임평용이 지휘하는 성남시향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을 협연하고, 9월 24일에는 아트뱅크 코리아 주최로 드뷔시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Debussy Project in Busan'에 참가, 부산 금정문화회관 무대에 올라 드뷔시 〈영상 1권〉을 연주한다. 각기 다른 의미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항상 실내악 음악 연주를 좋아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실내악 연주를 준비하면서 음악에 대해 견해를 나누며 음악을 다방면으로 대하는 능력과 듣는 귀를 발달시킬 수 있고,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순간적인 감동을 얻는 것이 무척 매력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이죠. 이번 트리오 공연에서도 이런 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향과의 공연은 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비중이에요.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좋은 홀에서 공연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특히 다양한 음악회로 높은수준의 음악회를 이끄시는 임평용 선생님과 이번이 첫 연주여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의 공연은 아트뱅크 코리아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 악기 연주자들의 드뷔시 곡들 연주로 꾸며지며 피아노 연주는 제가 유일한테, 존경하는 작곡가인 드뷔시의 탄생 기념으로 연주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올릴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과 드뷔시 〈영상 1권〉은 각별히 좋아하는 아끼는 곡이기에 기대감은 배가된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은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고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협주곡 중의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나 피아노적으로 정말 잘 쓰여진 작품이죠.

아주 화려하고 테크니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곡이며, 저변에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우아함'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곡을 화려하게만 생각하기 보다 중간 중간 나타나는 그만의 고결함과 우아함이 내비치는 매력을 잘 표현할 때에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곡가가 추구하는 색깔과 성격, 그리고 음악적인 조화(texture)를 잘 드러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드뷔시의 〈영상 1권〉은 공부한지가 꽤 되었고 제가 가끔 식 무대에 올리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그만의 독특한 성격과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기법이 잘 드러나 있죠. 화성을 통해 색채를 드러내고 어떤 특정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우며 풍부하고 다양한 화성, 리듬, 그리고 색채를 통해 인상을 창조하는데요. 특히 각 곡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자연에서의 움직임과 아름다움을 음악적 색채를 통해 표현한 곡들로, 드뷔시의 피아노 곡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주와 후학양성을 성실히 수행하며

탁영아는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더욱 지명도가 높은 피아니스트이다.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 유학 길에 올라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총장 장학금을 수혜하며 수학하고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거친 그녀는, 뉴욕 카네기홀 웨일홀, 링컨센터를 포함해, 캐나다·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호평 속에 공연을 펼쳐왔다. 2012년 상반기에도 탁영아는 여러 연주들과 수업으로 바쁜 시기를 보냈다. 플로리다주의 베니스 심포니와 협연을 시작으로 카네기 웨일홀에서 뉴욕데뷔 무대가 있었으며 플로리다주에서의 독주회와 교수 음악회를 가지는 한편 미국 버지니아 주 로어노크 심포니와 협연무대를 꾸렸다. 카네기홀에서의 연주 뒤 뉴욕의 매니지먼트사인 파커 아티스트(Parker Artists)와 계약하게 되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그녀는, 최근 MSR 레이블에서 독집 음반을 발매, 『아메리칸 레코드 가이드』·『팡파르』 등 여러 매체에서 상찬을 받고 있다. 이런 성공적인 활동의 저변에는 진심이 있고 깊이가 있는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지향점이 함께 한다.

“연주에는 연주자가 거울처럼 반영되죠. 저 자신이 더욱 성숙되고 깊이 있는 뮤지션이 될 때에 더욱 가치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의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함께 음악 하는 친구들이나 멘토와의 음악적인 토론에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자극을 얻곤 하죠. 그리고 곡을 대할 때 작곡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함을 더욱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저의 메시지가 관객들과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제 의도와 생각이 확실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연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연주자로서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감동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감각과 지적능력을 동

반한 채 음악적 의미 안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성한 연주 활동 외에도 탁영아는 피바디 음대 예비학교 교수를 역임한 뒤 2009년부터 사우스이스턴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다채로운 연주활동을 하면서 후학 양성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지만 연주와 상보적인 면이 많고 보람도 크다고.

“저는 티칭과 연주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곡만 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인간으로서 알아가고 거기에 맞는 티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저의 의견을 붓기 보다, 학생들과 음악에 대해 의논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내려고 하죠. 얼마전 교수평가 설문지에 저의 학생 중 한 명이 저와의 레슨을 통해 자신이 연습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적어놓은 것을 읽고 큰 보람을 느꼈는데요, 이처럼 제자들이 동기부여를 느끼고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음악가로 살아가는 여러 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음악을 통해 학생들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삶에 대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것에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제자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면은 어떤 것들일까?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연습하고 연주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시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멀리 볼 수 있는 끈기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곡을 대할 때나 음악을 접할 때 ‘왜’, ‘어떻게’로 질문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지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담긴 연주를 하도록 지도합니다. 레퍼토리와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으며, 실내악 연주 등을 통해 다른 뮤지션들과의 교감도 당부하는 점이지요.”

한국에서의 연주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비롯해 다시 분주한 일정을 보낼 그녀는, 사우스이스턴대 교수 음악회(10월 22일), 학교에서 주최하는 리시어틀(12월 3일) 외에도 교수 음악회의 일환으로 성악 및 첼로 교수와 무대 및 피아노 트리오 연주가 계획되어 있고, 몇몇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근교에서와 사라소타에서의 독주회도 준비중이며, 내년 초에는 아마하의 초청으로 내한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음악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아티스트가 되길 바라고, 음악을 통해서 위로 받고 감동 받은 것만큼 음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탁영아. 이런 울곧은 사고를 가지고 성실히 정진하기에 그녀의 활동에 신뢰감 어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글 | 윤석진